

7/8

2014

THE ART MAGAZINE  
MISOOLSIDAE

미술시대  
MISOOLSIDAE

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80

LEE HYE-RYUNG

Jordan Matter, Lee Jae-Sam

Choi Young-Doo, Moon-E



## 로니 혼전

2014. 5. 20 - 6. 22 국제갤러리 2관 및 3관

혼의 작업이 보여주는 이 경험적 수월성은 시각적 경험과 기억의 잔상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원적 구조를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관객과 예술작품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드러낸다. 국제갤러리에서의 이 전시에서 혼은 쌍으로 이루어진 작품들, 중복으로 이루어진 작품들, 그리고 몇 초 사이의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 이미지들의 익숙치 않은 활용을 통해 동일성과 차이라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들을 모색하고 있다. (문의: 02-735-8449)



◀ Untitled (Weather) · 31.11x26.03cm · inkjet/pigment print on paper: 5 color prints, mounted on sintra · 2011 ▶ Untitled ("Sometimes I think I resemble myself too much. I have always been someone else...") · 56.5x76.2x91.4cm · Solid cast glass with as-cast surfaces, 2 unique purples · 2010-2012

로니 혼은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비평적인 작업을 선보여왔다. 혼의 작업이 보여주는 이 경험적 수월성은 시각적 경험과 기억의 잔상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원적 구조를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관객과 예술작품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드러낸다. 국제갤러리에서의 이 전시에서 혼은 쌍으로 이루어진 작품들, 중복으로 이루어진 작품들, 그리고 몇 초 사이의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 이미지들의 익숙치 않은 활용을 통해 동일성과 차이라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들을 모색하고 있다.

K3에서 전시되며 이번 전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로니 혼의 유리 구조 조각들은 관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색깔을 띠고 있는 눈동자 형태의 조각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가의 날카로운 인식론적 문제 의식을 담아내고 있다. 그녀의 이전 유리 조각 작품들 보다 큰 규모로 제작된 이 조각들은 전시장 전체를 가득 메우는 엄청난 육중함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, 그것이 포획하는 빛

으로 인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 거대한 물의 덩어리인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. 이 신작들이 관객을 사로잡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들에 감도는 연두색 계통의 색감이다. 이 색감으로 인해 작품들은 평범한 분류를 벗어나 대지와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. 함께 전시되었을 때 이 작품들은 친밀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적 환경을 창조해낸다.

문학과 시에 대한 사랑으로 잘 알려진 혼이 자신의 유리 작품들에 붙인 제목들은 관객들에게 특정한 해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탁월하게 작품들의 성격을 드러내어 준다. 반면 이 제목들은 의미를 반영하고 굴절시켜 대상에 대한 경험을 열려있는 다원적 경험으로 바꾸어 놓는다. K3관에 전시된 다음 여섯 작품들의 제목을 읽는 일은 너그러우면서도 예리한 시구를 떠올릴 뿐 아니라, 유리라는 재료가 자체가 그러하듯, 반복적이면서도 독자적인 해석들을 가능하게 한다.